

중소형 증권사 매각 헛바퀴... “M&A 쉽지 않네”

SK증권 케이프 인수 제동 걸려
이베스트 수익성 개선돼 몸값 ↑
골든브릿지 노사갈등 등 난항 지속



중소형사 인수합병(M&A)을 위한 매각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매수자 측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거나 적정 매각가를 찾지 못하고 있어 서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매물로 나온 증권사는 SK증권을 비롯해 이베스트투자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등이다.

SK증권은 케이프투자증권의 인수가 좌초되면서 다시 매물로 나올 위기에 놓였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이 인수 과정에 불법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케이프투자증권은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공동 출자로 설립한 PEF(사모

투자펀드)를 통해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60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해 9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제 34조 조항을 들며 대주주 적격성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증권사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이나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할 수 없다. 또 채무 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 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인 거래도 금지돼 있다.

이에 케이프컨소시엄은 SK증권 인수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을 PEF에서 제외하는 등 인수 구조를 재구성한 후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케이프가 자금을 추가로 공급할 여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SK증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는 지주사 요건에 따라 하루 빨리 증권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매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분 정리’ 시정 명령과 함께 29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황. 앞으로 1년 이내에 경영권 매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검찰 고발과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한 IB 관계자는 “케이프컨소시엄이 다시 인수 구조를 짜고, 자금을 모으기까지 기다리기에는 SK가 시간이 없다”면서 “SK증권 인수에 큐캐피탈파트너스,

우리은행 등도 많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SK증권이 다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LS그룹의 재무사정이 악화되면서 LS네트웍스의 자회사인 G&A PEF가 소유하고 있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지분 84.58%를 매물로 내놨다. 이에 지난해 4월 아프로 서비스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6월에 무산된 후 지금까지 인수관련 추진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매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LS그룹의 매각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수익성이 나날이 개선되면서 몸값도 5000억원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해 3분기 기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4%로 자기자본 1조원 미만, 1000억원 초과인 중

소형사 가운데 최상위 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LS네트웍스는 당분간 이베스트투자증권 경영에 주력하면서 인수 후보자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수익성 악화와 노사갈등이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그룹이 재무구조 개선 등 활로 모색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거듭된 유상감자로 자본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새 주인 찾기가 요원해진 상태. 더욱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4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6년 증권사 간 M&A를 통해 등장한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대우증권), KB증권(KB투자증권+현대증권) 등은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Vitamin House

내 몸속의 혈액이 흐르는 수도관, 혈압의 건강한 관리!

**비타민하우스의 코엔자임NatQ는
항산화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엔자임Q10
100 mg**

**나토키나제
2,000 FU (부원료)**

코엔자임NatQ 450 mg X 60 캡슐

하루 한캡슐로! 1. 간편하게 100mg의 코엔자임Q10 섭취! 2. 나토키나제 2,000 FU 섭취!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식품코너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

‘스마트시티’ 최적화... 중추적 역할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비츠로시스

주사업 부문 스마트시티와 연관돼

“정부의 스마트시티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여기에 특화된 비츠로시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비츠로시스의 모든 사업 부문이 스마트시티와 연관돼 있다”며 “정부 정책에 힘입어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이른바 ‘미래형 도시’로 세계 각국의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는 40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스마트시티 시장은 오는 2020년엔 1조50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스마트시티 시장 역시 2016년 1조7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 2조9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츠로시스의 주요 사업은 ▲전력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국민 재

난안전 관리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U-City 사업 ▲스마트 물 환경 사업 등으로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도 연이어 수주하고 있다. 140억원 규모의 ‘송산 그린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포함해 ‘공항 철도 노후 전기 설비 교체 사업(87억원)’, ‘수원 스마트워터 시티 상수도 고도화 시스템 구축 사업(30억원)’ 등을 수주하면서 지난해 9월까지 수주잔액은 550억원 규모에 이른다.

최 연구원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 정책이 적극 추진되면서 향후 수주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관계사 비츠로미디어와 휴메트로릭스가 자본잠식인 점은 우려되는 점이다.

최 연구원은 “관계사에 대한 자금 보충 의무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순이익 부문에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적정 주가 산정에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리서치알음은 비츠로시스에 대해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10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51.6%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지 기자】

‘오르락내리락’ 코스피 혼조세에 순자산 ↓

| 주간펀드동향 |

대형주 하락장세·중소형주 상승세

대형주 위주의 하락장세가 펼쳐지면서 국내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감소했다.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한 주(1월 26일~2월 1일)간 코스피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도세가 출현하며 상승폭을 줄인 탓에 전주 대비 0.25% 상승한 2568.54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형주(0.37%)와 소형주(0.36%)가 소폭 올랐고, 대형주(-0.21%)가 하락했다.

국내주식형 펀드는 해당기간 0.09% 상승했다.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는 0.14% 하락했지만 액티브주식 중 소형 펀드 수익률(0.58%)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액티브주식펀드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하면서 국내주식형펀드의 순자산은 600억원 줄었다.

한편 해외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하락 반전했다. 인도(-37%), 유럽(-1.29%), 중국(-0.63%) 등이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해외주식형 펀드 전체 수익률은 -0.43%를 기록했다. 다만 신흥국 펀드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 순자산은 3440억원 증가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주식형 펀드는 액티브주식일반 유형인 ‘한국투자패스파인더증권투자신탁 1(주식)(A)’(4.05%)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중남미주식으로 분류되는 ‘JP모간브라질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A’(5.91%)가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